

잡아함 88. 울다라경

날짜: 4월 15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06>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울다라(鬱多羅)라는 어떤 바라문 청년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세존과 서로 인사하고 위로한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법답게 행걸(行乞) 2)하고, 그것을 부모님께 공양 올려 괴로움을 떠나 안락하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하면 복이 많겠습니까 ? ”

부처님께서는 울다라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복이 많으니라. 왜냐하면 만일 법답게 행걸하고, 그것을 부모님께 공양 올려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그들을 안락하게 한다면 실로 큰 복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곧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너처럼 부모님에게
공경히 공양을 올린다면
이 세상에선 명성이 자자하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리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젊은 울다라는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